대입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김 완 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wjkim@snu.ac.kr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분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교육혁신위원회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 개혁안을 교육부가 내놓은 이후 다양한 의견제시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교등급제 논란은 앞으로 2008학년도 입시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2008학년도 개혁안은 현재의 입시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능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내신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안으로서 기본 방향은 옳다고 판단되지만 내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내신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록내용을 다양화하고 충실화하며, 성적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교별 학력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각 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의 특성이 다르므로 그러한 차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는 객관화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대학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권을 확대해야 한다.

주관적 평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학생선발의 목표와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목표에 맞는 학생선발을 위한 전형방법을 현재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2학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입학전형은 기존의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방법을 지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전형요소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이러한 입학전형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먼저 입시제도가 복잡하고,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추천서등의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과중한 수험부담과 사교육비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논란도 적지 않게 있어 왔다.

또한 다양한 전형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

에 한 분야에 탁월한 학생의 합격이 불확실하게 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학생선발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학문적 수월성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편 각 대학은 지역적, 사회경제적으로 교육환경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형평의 측면도 있지만 학생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2. 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향

2008학년도 개선안에 따르면 수능은 더 이상 표준점수나 백분위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을 제공하게 된다. 각 과목별로 9등급으로 등급화하고 1등급은 상위 4%의 학생이 받게 되는 현행의 등급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화를 한다는 것이다.

등급화는 학생선발 특히 정시모집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능이 등급화되면 대학들은 더 이상 수능 합산 점수로 학생들을 줄 세울 수없게 되고 자격기준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능의 활용도가 이와 같이 약화되면 내신의 변별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학은 자연히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논술과 심층면접은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전형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심층면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천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종합대학에서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현행과 같은 짧은 시간에 하는 면접은 정확한 학력과 인성 측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대부분의 심층면접은 본고사와 다름없는 내용을 개별 학생별로 시행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학생의 관점에서도 본고사는 큰 부담이 된다. 지망하는 대학의 문제 유형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수능을 보다 잘 활용하면 대학의 본고사 요구를 줄이면서 학력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변별력을 제공할 수있을 것이다.

현행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과목의 난이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최우수학생의 선별과 학력제고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학력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능을 등급화하되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능을 수능1과 수능2로 나누어 실시하고, 수능1은 기초적인 대학수학능력과 지식을 측정하도록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며, 고1 공통교과목 수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목으로 구성한다.

수능2는 다양한 난이도의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교교과과정범위내의 학력고사형태의 문제로 출제한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영역에서 심화과목수준의 다양한 교과목 시험을 출제하며, 과목수강후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여 여러번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을 개발하고 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국 등의 의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3.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2008학년도 이후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고교교육과정에서 내신자료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충실해지면 대학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내신은 학생의 입학 후 성취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요소라는데 사실을 많은 연구결과가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고교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교과과정과 활동을 개발하면 그것을 대학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의 특성에 관해 요약한 자료, 예를 들어 학교의 설립연도, 재적학생수, 위치, 평가방법,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대학진학현황, 제공 교과목의 내용과 종류, 특별한 교육이념, 학교의 평균수능성적 등을 포함한 표준적인 학교프로필을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평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 구성을 지역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화하도록 노력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 방법을 개발하고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는 우수학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전체 모집인원을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학력위주전형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선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있을 것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사회, 경제적 계층별, 지역별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신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내신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면,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고르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가 이미 이 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개선안에서도 이러한 전형을 대학들이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기자전형에서는 시험성적보다는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중심으로 고교 재학시 활동을 기록한 각종 자료, 예를 들면, 학생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수상경력 등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의성있고,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형을 통해서 점수 한 점 더 잘 받는 학생보다는 잠재력있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뿐아니라 개별 대학의 설립이념과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기자 전형과는 달리 어느 한 특기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인재를 균형있게 선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개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는 이 전형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력위주전형은 전통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도 일부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도입취지가 있다. 대학이 학력우수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엘리트를 길러내는 수월성 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전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 등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대폭 허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지는 대학이 더 잘 알 것이므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형을 균형있게 활용하면 공교육정상화, 교육의 기회균등, 수월성 교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